

특허청,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

- 특허청·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(2.20) -
-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실시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정책 소개 -

특허청은 2. 20.(화) 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대전시 유성구)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.

간담회는 국정과제*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·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관련 국정과제: 24. 반도체·인공지능(AI)·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

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,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,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.

특허청 서울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“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 “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·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※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화학생명심사국	책임자	과 장	좌승관 (042-481-5534)
	유기화학심사과	담당자	사무관	신창훈 (042-481-5487)